

광양시, 애경특수도료(주)와 100억 원 투자협약 체결

전기차 핵심소재 무방향성 전기강판용 절연코팅제 공장 신축 내년 상반기 완공·6월 시생산 목표...연간 7천 톤 규모 생산

광양시는 지난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태한 애경특수도료(주) 대표와 국가산업단지 내 5,000㎡ 규모로 포스코 무방향성 전기강판용 절연코팅제 생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공장은 2023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고, 같은 해 6월 시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7천 톤 규모의 절연코팅제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수요 증가로 광양에 1조 원을 투입해 무방향성 전기강판(연간 30만 톤 규모) 공장 착공에 들어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주변 유류 인력을 흡수해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시는 탄소중립을 선도할 친환경 전기자동차 소재 전기강판 생산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전기차 소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애경특수도료(주)가 전기강판용 절연코팅제 생산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애경특수도료(주)가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힘을 합쳐 미래 신성장 먹거리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핵심소재 산업을 주도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광양=김현근기자



고흥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고흥군은 27일 고흥읍소재지 일원에서 전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고흥경찰서, 고흥소방서, 고흥교육지원청 공무원 등 75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교통안전 현수막, 전단지, 홍보용품 등을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금지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안 하기 △불법 주·정차 금지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 누구나 위법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할 것을 함께 안내했다.

고흥=기동채재본부

여수시, '섬섬여수옥수수' 개발 상품 홍보 판촉행사 개최

30일부터 이순신광장·웅천 친수공원·남만포차 광장서 순차 진행

여수시가 지역 대표 농특산물로 육성하고 있는 '섬섬여수옥수수' 개발 상품의 홍보 판촉행사를 주요관광지에서 개최한다.

▲9월 30일~10월 1일 이순신광장 ▲10월 14일~15일 웅천 스타벅스 앞(친수공원 인근) ▲10월 28일~29일 남만포차 광장에서 열리게 된다.

3차례 모두 격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개최되며, 운영 시간은 금요일 오후 1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8시이다.

선보이는 옥수수 상품은 찐옥수수, 콘(삶은 알갱이), 조청, 과자, 차, 빵, 쿠키, 라떼 등으로 여수 찐옥수수를 활용해 개발, 출시한 가공제품이다.

시는 주요관광지 외에도 지상파TV, 흡수평, 맘카페, 백화점, 식품박람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옥수수 판매에 머물러 있던 옥수수의 판로확대를 위해 가공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홍보 판촉행사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2년간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섬섬여수옥수수'를 브랜드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회사사업으로 옥수수 상품개발과 포장디자인, 가공시설 구축, 홍보마케팅, 유통 다각화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여수=김현근기자

보성 득량면 비봉,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 최적지 남해안 남중권 관통 호남의 해양수산자원 플랫폼 역할 기대



보성군이 전남에 들어서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에는 청사광장에서 김철우 보성군수와 간부공무원, 읍면장 및 직원들이 모여 결의를 다졌다.

군에 따르면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공모대상지는 득량면 비봉리 일원으로 부지 42,500㎡에 전시장, 체험관, 연구시설, 교육관, 수장시설 등 연면적 22,464㎡, 총사업비 1,245억원(국비 100%) 규모의 복합기능을 가진 해양문화시설이다.

특량면 비봉리 일대는 비봉공룡공원과 공룡화석지, 공룡생태관, 비봉마리나, 해상낚시공원, 어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해양레저 관광 문화의 복합시설이 완비된 곳으로 자연경관까지 빼어나 대상지로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해안 남중권을 관통하는 호남의 해양수산자원 플랫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보성군은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를 위해 9월에 분야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했으며, 보성군 적극 유치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보성군 이장단협의회를 시작으로 보성읍민회 등 각 읍면 기관단체들이 박물관 유치 지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결의대회를 연달아 지지하고 있다.

국립 해양수산물박물관 유치 TF팀은 차별화된 콘셉트의 박물관 조성 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 논리 개발, 연구용역 추진, 콘텐츠 개발 등

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보성군은 남해안 남중권 중심부에 있어 연안 시군의 다양한 해양수산자원을 품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다.

또한,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별고꼬막은 수산물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돼 있으며, 별배 어업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다.

최근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보성별고꼬막을 비롯한 득량만 별은 탄소흡수, 해양 환경정화 등 해양수산물에 살아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성군은 인근 연안지역 간의 지리적 요충지임과 동시에 해양 생태와 문화 역사를 두루 갖춘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자연·환경적 여건이 우수한 보성군에 국립 해양수산물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적 협력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김태순기자

순천 문화예술회관, 불후의 클래식 정동하&별 콘체르트

순천시시는 오는 29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견뎌 온 시민들을 위해 '불후의 클래식 <정동하&별 콘체르트>' 공연을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불후의 명곡 우승자 정동하가 가을을 담은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노라면>, <골목길>, <생각이나> 등을 들려주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래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별의 <12월 32일>, <I Think I>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 2012년 국내 시립 오케스트라 출신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아시아 클래식 플레어 앙상블(ACP)은 오페라 <카르멘>의 서곡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